

어머니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남녀 집단 간 또래 애착의 중재를 중심으로

김혜진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성별과 또래 애착의 수준이 분리-개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 59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들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둘째, 청소년 분리-개별화 모형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분리-개별화 모형의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해 남자와 여자 집단 간 모형 및 경로계수에 대해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남녀 집단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에 따라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했으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양육, 분리-개별화, 모-청소년 갈등, 또래 애착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으로,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Rice, 1992), 분리될 때 느낄 수 있는 불안, 죄책감, 혹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건강한 적응으로서의 독립인 분리-개별화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더 이상 부모를 절대적인 존재로 이상화시키지 않고 부모에게서 분리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 교신저자 :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Smollar & Youniss, 1989). 이렇듯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리-개별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학업에서의 적응, 또래 관계 등의 가족 외적 변인과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응집력, 애착 관계 등의 가족 내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Holmbeck & Leake, 1999). 가족 내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변인들(박아청, 2001; 이희자, 최수경, 1999; 정종권, 1998)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장휘숙, 2002; Beyers & Goossens, 2003; Dwairy, Achoui, Abouserie, & Farah, 2006; Grotevant & Cooper, 1986).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이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독립에 대해 인정, 지지, 수용, 격려하는 태도를 지닐수록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욕구충족을 위해 청소년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수록 자녀들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은희, 1992; Hoffman & Weiss, 1987; Thornburg, 1982).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 갈등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in, Thompson, & Whiffen, 1993; Bloss, 1979; Grotevant & Cooper, 1986; Holmbeck & Hill, 1988; Josselson, 1980; 황영은, 도현심, 2004).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접목시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의 적응적인 중요성에 대해 보완적인 관점을 제안한 Holmbeck과 Hill(1988)은 이 시기의 갈등이 대인관계적 수준(interpersonal level)뿐만 아니라 심리내적 수준(intrapsychic level)을 통해 발달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리내적 수준에서 볼 때, 그들은 갈등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Smollar와 Youniss(1989)도 애착 맥락에서의 빈번한 불일치는 청소년이 부모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해 아동기 시절의 의존을 그만두게 되어 강한 부모-청소년의 애착 맥락 하에서의 갈등이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 Holmbeck과 Hill(1988)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그들은 대인관계적 수준에서 바라볼 때, 부모와 청소년 간에 급증하는 갈등은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Holmbeck & Hill, 1988). 즉, 청소년은 갈등 혹은 불일치 과정을 통해 부모에게 변화된 자아개념과 기대를 알려줄 수 있어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발달 및 분리-개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청소년에게 비권위적이고 비지배적으로 양육할 때,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의미인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청소년 자녀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Hill, 1993; Paikoff & Brooks-Gunn, 1991), 부모가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부모-청소년 자녀 간에는 갈등이 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부모-청소년 자녀 갈등과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간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를 분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에는 양자 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Holmbeck &

Hill,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Holmbeck & Hill,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Cooper et al., 1983;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인 경험이나 갈등 상황이 많아질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이 더 증가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모-자녀 간 갈등의 매개를 거쳐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 가설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는데 있어 하나 이상의 모형이 경험적인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Breckler, 1990) 본 연구에서는 지지하는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반증하기 위해서 경쟁 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Steinberg & Silverberg, 1986; 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연결하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가설적인 모형이다. 이와 같은 경쟁 모형을 본 연구에서 가정된 매개모형과 비교 검증해 봄으로써 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의 발달에는 가족 내의 변인 뿐 아니라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변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최미경, 도현심, 2000; Kenny & Deborah, 1994; Hartup, 1996), 또래가 부모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오송희,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Santrock, 1996)에도 불구하고 분리-개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애착 등의 가족 내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맥락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들도 건강한 적응을 강조하면서(Blos, 1979; Schafer, 1973), 자아정체감의 발달(Frank, Pirsch, & Wright, 1990), 진로의사결정(김은진, 2000;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대학생활적응(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Hoffman, 1984), 학업 능력(장휘숙, 2002; Hoffman, 1984; Mattanah et al., 2004)과 분리-개별화 간의 연관성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탐색하게 되므로 발달 상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기이다. Ainsworth(1989)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래 간의 애착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이 가정 이외 생활의 질을 결정하므로 건강한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이후 사회 생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김예리, 2002). 여러 연구결과들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원이며 청소년들은 재정적 지지, 장

래 및 직업 계획, 개인적 가치 등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모보다 또래에게 더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antrock, 1996).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중요한 측면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또래의 능력으로 보았는데, 이 시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정영숙,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긍정적 또래관계나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주희, 이춘재, 2003).

또한,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차(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Mattanah et al., 2004)가 보고되었는데, 남자일 경우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정은희, 1992; 한혜준, 1994)와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Mattanah et al., 2004)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성차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을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남녀 각 집단별로 비교 검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 외적인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또래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또래 애착의 수준이나 친밀한 관계의 정도가 청소년의 발달 및 건강한 적응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Armsden & Greenberg, 1987; Santrock, 1996)을 토대로 또래 애착의 수준을 고,저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 간에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서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Montemayor, 198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양육태도나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 부모나 타인의 보고보다는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더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Rohner & Pettengill, 1985)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을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청소년 중기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모-자녀 갈등의 매개 과정을 밝히고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분리-개별화 과정이 성차와 또래관계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법

연구 대상

서울과 인천 지역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628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친모가 아닌 경우의 11명과 부실기재 응답자 21명을 제외한 596명이 최종 대상이었다. 참가자들 중 남자는 307명(51.5%)이고 여자는 289명(48.5%)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212명(35.6%), 2학년이 384명(64.4%)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로,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하위요인(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 연구 결과,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홍성권, 2005). 결과 처리시에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3개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8-.85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냈다.

2) 모-자녀 갈등 척도

Prinz, Foster, Kent, O’ Leary (1979)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Prinz(1979)가 간략화한 것을 황영은, 도현심(2004)의 연구에서 번안한 모-자녀 갈등 척도(CBQ :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했다. CBQ는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16문항), 상대방에 대한 불평 및 불만(28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있다. 선행연구 결과, 모-자녀 갈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요인별로 .73-.84로 나타났다(황영은, 도현심, 2004). 결과 처리시 부정적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문항수와 긍정적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문항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자녀 갈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90로 나타났다.

3)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Levine, Green 과 Millon(1986)이 개발하였고 장근영,윤진(1992)이 번안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 SITA)를 사용하였다. 8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결과 처리시에 친구 결속, 자기 몰입, 건강한 독립 3개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심리적 측면인 8개의 하위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입불안(engulfment anxiety; 7문항)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자기몰입(self-centeredness; 15문항)은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도취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 14문항)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건강한 독립(healthy separation; 7문항)은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기대(reject expectancy; 12문항)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섯째, 의존부정

(dependency denial; 12문항)은 의존 욕구에 대한 회피나 부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일곱째, 공생관계(nurturance-symbiosis; 7문항)는 강한 의존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느낌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덟째, 친구와 결속강화(peer engulfment; 6문항)는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며 각 요인별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8-.85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 공생관계, 친구 결속, 건강한 독립 차원의 3개 요인들은 낮은 신뢰도 계수로 인해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또래 애착 척도

Armsden와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R)를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 중 또래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상호신뢰(trust), 의사소통의 질(communication), 소외(alienation)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래 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상호신뢰 차원이 10문항, 의사소통 차원이 8문항, 소외 차원이 7문항이다. Armsden와 Greenberg(1987)의 연구와 옥정(1998)의 연구에서 전체 또래 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문항 형식은 본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reverse scoring)한 후 평균을 내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또래 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

났다. 하위 요인 중 소외 차원의 문항 9번은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이므로 분석시 제외하였다.

연구 절차

서울과 인천시 소재의 3개 고등학교에서, 전체 20개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에 대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담임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척도, 모-자녀 갈등 척도, 청소년 분리-개별화 척도, 또래 애착 척도, 인적 사항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질문지 작성 시간은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PC+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살펴보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가설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를 선택한 이유는 두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 .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홍세희, 2001).

본 연구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된 최적의 모형이 두 집단 간에 동등하게 지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고저 집단 간에도 동일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분석은 구조 및 측정동일성 검증 등을 포함하는데(홍세희, 2001), 구조 동일성 검증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표본이 동일한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고, 측정 동일성 검증은 구조동일성이 입증된 이후에 각 경로계수들이 두 표본 간에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조 동일성 검증은 전체 집단을 분석할 때 실시한 분석방법 그대로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을 구분한 자료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게 된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두 표본 간에 각 경로계수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제약(동일화 제약, equality constraint)을 가해 놓고 모형을 분석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baseline model)과 두 표본의 각 경로계수들이 모두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한 완전 측정동일화(full metric invariance) 모형 간에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사용한

다. 검증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지면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동일화 모형이 기각되고,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면 성별과 또래 애착 수준에 걸친 동일화 모형이 지지되는 것이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차이검증 뿐 아니라, 각 모형의 TLI 및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홍세희, 2005).

결 과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 분석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척도별 남녀간의 차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모-자녀 갈등, 또래 애착에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분리-개별화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집단과 남, 녀 및 또래 애착 고, 저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별로 각 측정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차 및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남자(N=307)	여자(N=289)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의 양육태도	2.13(.41)	1.96(.41)	4.867***
모-자녀 갈등	1.21(.91)	.97(.76)	3.451***
분리-개별화	2.21(.27)	2.19(.27)	.971
또래 애착	2.96(.39)	3.05(.46)	-2.725**

p < .01, *p < .001

표 2. 전체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20**	1		
분리-개별화	.537**	.513**	1	
또래 애착	-.258**	-.264**	-.626**	1

** $p < .01$

표 3. 남·여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u>남자(N=307)</u>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17**	1		
분리-개별화	.511**	.507**	1	
또래 애착	-.227**	-.268**	-.657**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u>여자(N=289)</u>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21**	1		
분리-개별화	.572**	.524**	1	
또래 애착	-.258**	-.243**	-.600**	1

** $p < .01$

표 4. 또래애착 고,저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u>또래애착 고집단(N=277)</u>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860**	1		
분리-개별화	.575**	.528**	1	
또래 애착	-.178**	-.163**	-.307**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	또래 애착
<u>또래애착 저집단(N=319)</u>				
어머니의 양육태도	1			
모-자녀 갈등	.771**	1		
분리-개별화	.488**	.482**	1	
또래 애착	-.197**	-.247**	-.501**	1

** $p < .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3>, <표 4>은 집 2.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단 별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793.9	88	.929	.913	.046
경쟁모형	791.0	87	.929	.912	.047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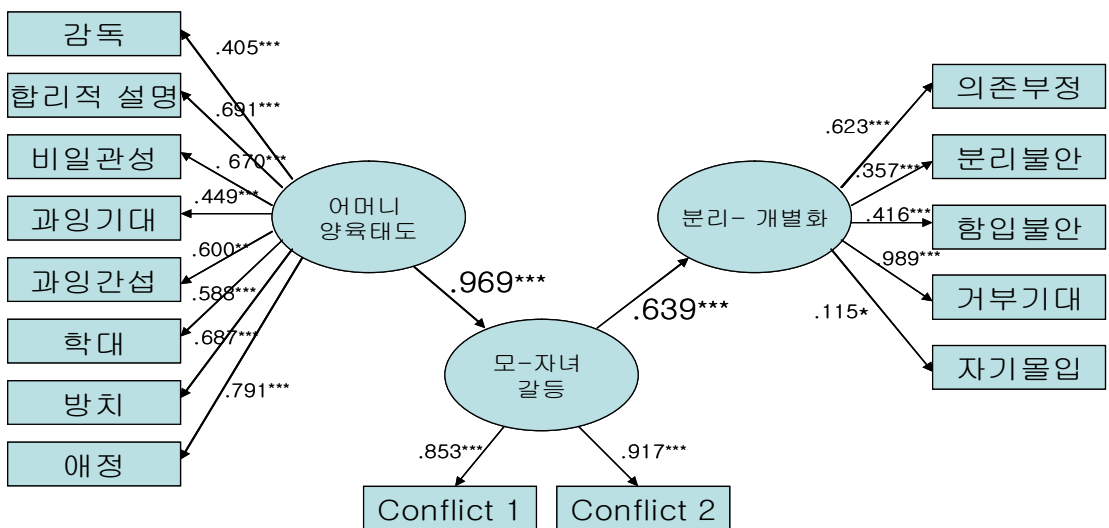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분리-개별화의 구조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사이를 모두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 모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를 연결하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모-자녀 갈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FI = .929, TLI = .913, RMSEA = .046으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모두 완전 매개하는 연구 모형이 지지되었다. 연구 모형과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3. 남녀 집단 분석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을 비교했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집단에서 모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 모형인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남자집단에서는 TLI = .915, RMSEA = .046, 여자 집단에서는 TLI = .908, RMSEA = .046로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 모형이 남·여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합하다는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완전제약모형(모형 2)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여 두 집단의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및 χ^2 차이 값이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남·여 집단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여 집단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 남·여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시되어있다.

4.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여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여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완전제약모형(모형 2)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여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및 χ^2 차이값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표 6. 남·여 집단의 기본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남자(N=307)				여자(N=289)			
	χ^2	df	TLI	RMSEA	χ^2	df	TLI	RMSEA
연구 모형	453.0	88	.915	.046	426.2	88	.908	.046
경쟁 모형	449.4	87	.913	.047	424.9	87	.905	.048

표 7. 다집단 분석 모형 적합도(집단간 비교분석)

	χ^2	df	$\Delta \chi^2$	Δ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879.2	176			.973	.040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894.3	187	15.1	11	.971	.041
모형3 : 구조 동일성	898.1	191	3.8	4	.971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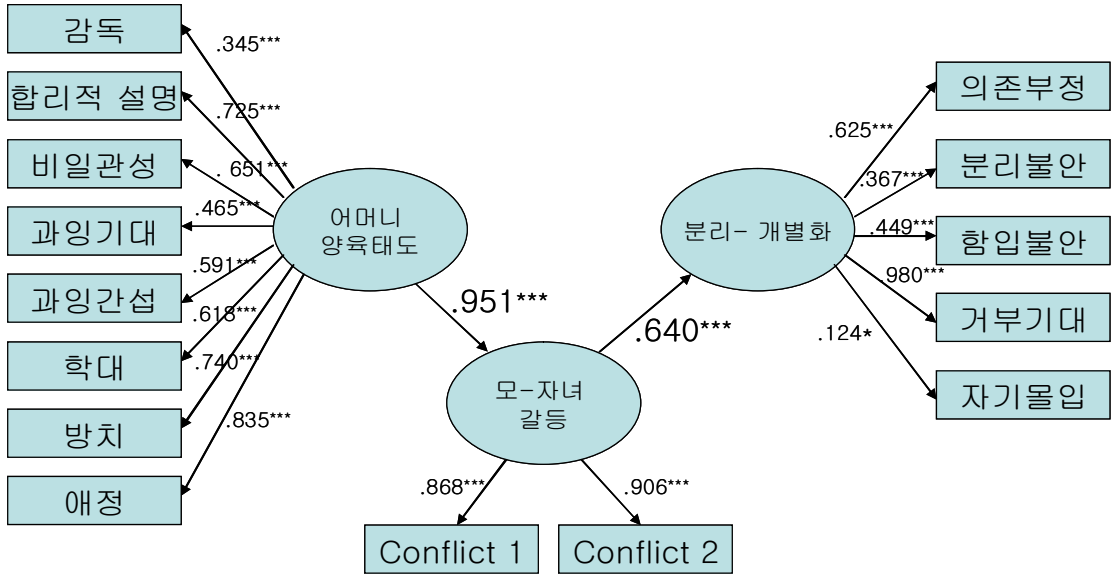


그림 2-A. 남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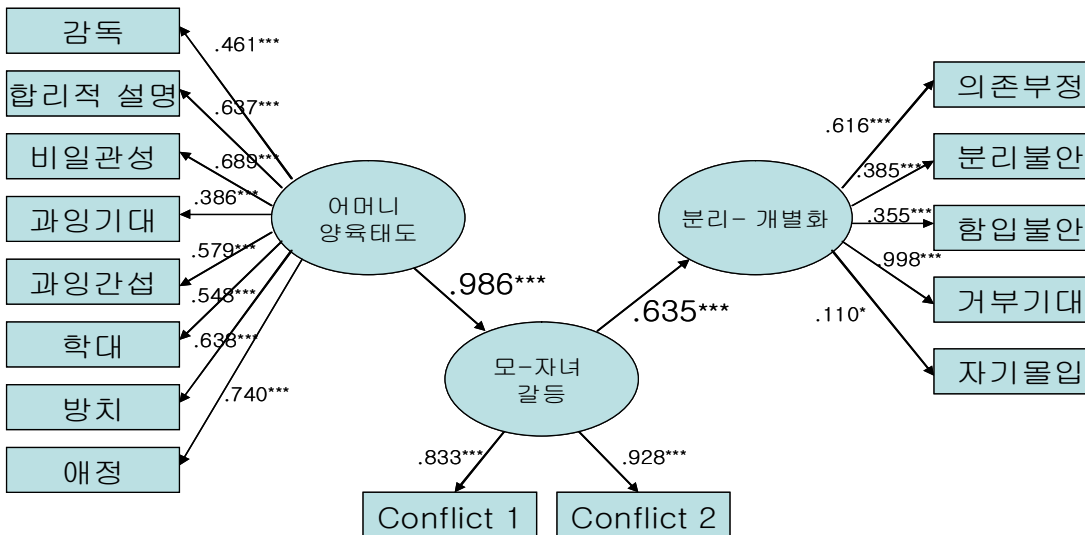


그림 2-B. 여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는 TLI = 0.953, RMSEA = 0.035 로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졌으므로, 또래 애착 고저집단에 따라 여자 모형의 경로 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계수를 찾기 위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대응하는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이 큰 경로부터 제약을 하나씩 풀이 준 결과,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를 풀었을 때 적합도 지수(TLI = 0.967, RMSEA = 0.030)가 <표 8>에 제시된 구조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따라서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의 경로 계수 차이값이 유의미한 경로는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이다.

<그림 3>은 여자 모형에서의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에 따른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와 같이 여자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 · 저 간에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 고집단은 $\beta = .869$ ($p < .001$)이고 저 집단은 $\beta = .563$ ($p < .001$)였다. 따라서 모-자녀 갈등의 변화량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동일하더라도 또래 애착 고집단 여자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저집단의 분리-개별화에 비해 더 민감하게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모-자녀 갈등으로 향하는 경로는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계수(고집단, $\beta = 1.015$ ($p < .001$); 저집단, $\beta = .960$ ($p < .001$))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

남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완전제약모형(모형 2)을 기저모형(모형 1)간에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RMSEA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자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및 χ^2 차이값이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 저 집단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과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조 동일성 모형(모형 3)의 적합도 지수는 TLI = 0.976, RMSEA = 0.040 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에 비해 오히려 좋아졌다. 따라서 또래 애착 고저집단

표 8. 여자,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 \chi^2$	Δ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488.5	176			.962	.031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496.4	183	7.9	7	.961	.032
모형3 : 구조 동일성	509.8	188	13.4	5	.953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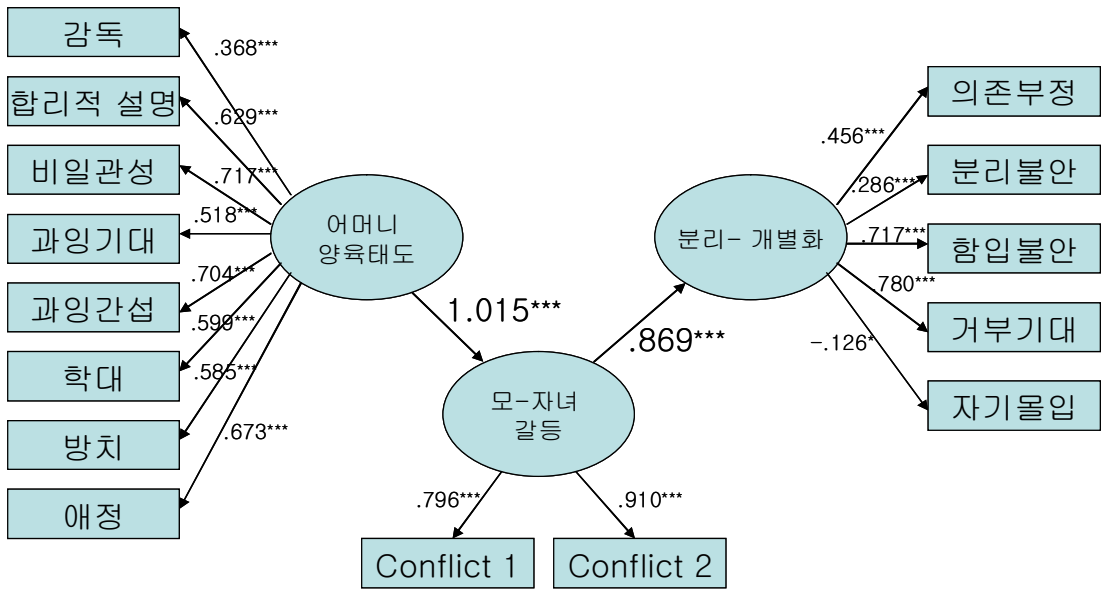


그림 3-A.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 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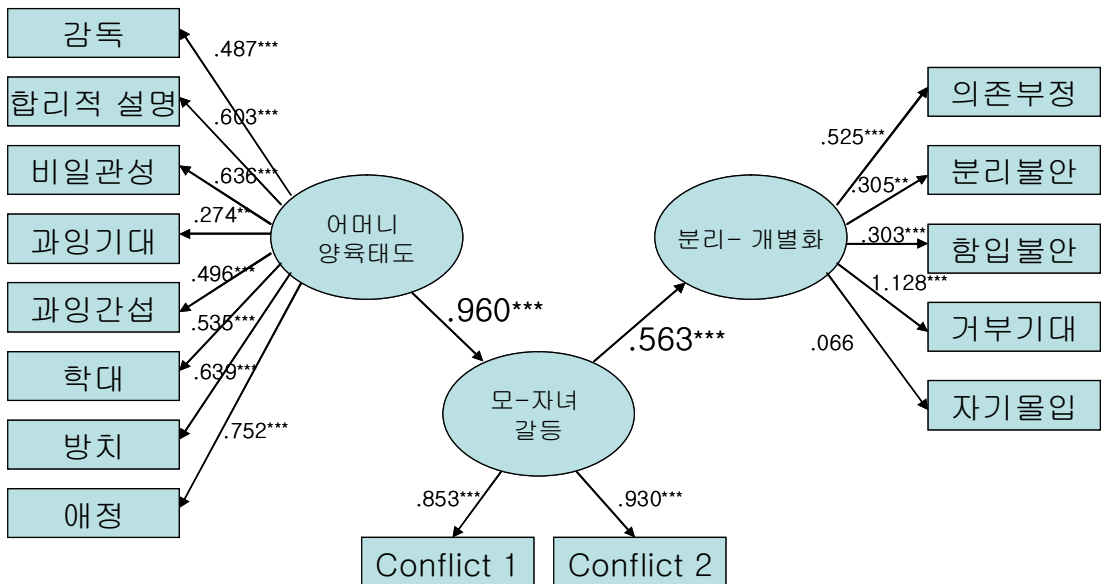


그림 3-B. 여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저 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

표 9. 남자, 또래 애착 고저 집단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 \chi^2$	Δdf	TLI	RMSEA
모형1 : 형태 동일성(기저 모형)	524.9	176			.973	.041
모형2 : 측정 동일성(완전 제약 모형)	534.3	183	9.4	7	.973	.041
모형3 : 구조 동일성	538.1	188	3.8	5	.976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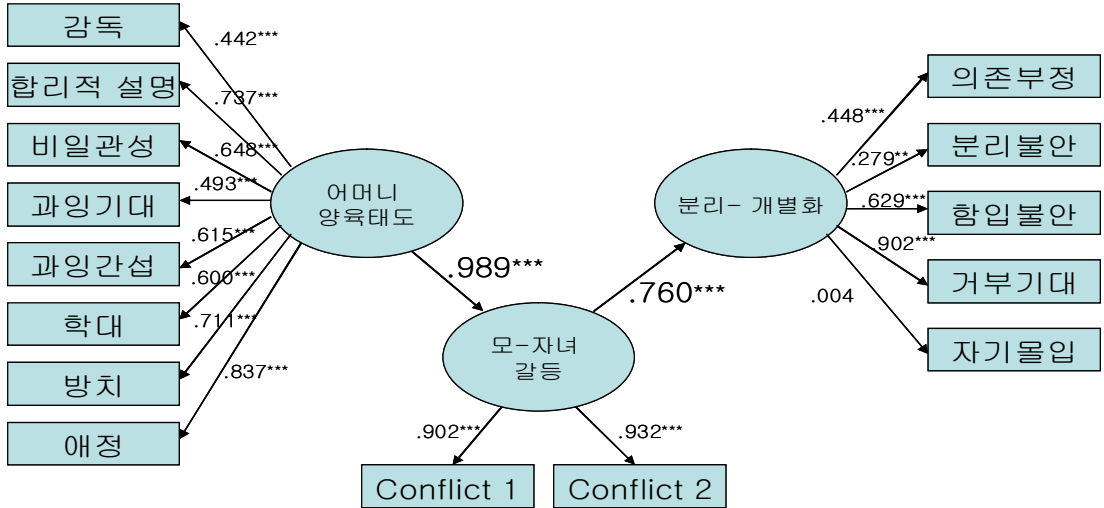


그림 4-A.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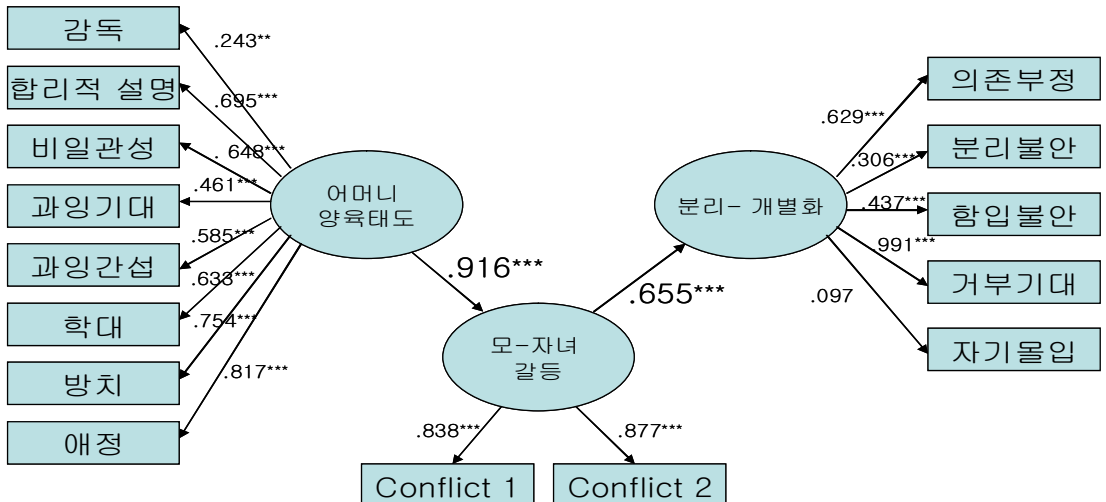


그림 4-B. 남자 모형에서 또래 애착 저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에 따라 남자 모형의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는 없었지만, 또래 애착 고·저 집단 모두에서 각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4>는 남자 모형에서의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른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로 향하는 경로계수(고집단, $\beta = .760$ ($p < .001$); 저집단, $\beta = .655$ ($p < .001$)) 결과는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하게 모-자녀 갈등이 클수록 남자 청소년은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모-자녀 갈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고집단, $\beta = .989$ ($p < .001$); 저집단, $\beta = .916$ ($p < .001$)) 결과는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또래 애착 고저와 무관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갖는 매개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 및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른 중재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인의 성차와 전체, 남·여,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의 측정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성차와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모형에 근거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본 결과, 분리개별화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자녀 갈등 및 또래 애착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

기에 가족 내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외적 변인인 또래 관계가 모두 성차에 따라 다른 환경으로 주어지고, 이를 지각하는 방식도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리-개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차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Mattanah et al., 2004)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리개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차와 관련하여 표면적인 차이 뿐 아니라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서로 다른 기전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체 집단과 남,녀 및 또래 애착 고,저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측정 변인 간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또래 애착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비해 분리-개별화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그들의 부모 또는 또래와의 애착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Armsden & Greenberg, 1987)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라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지된 완전 매개모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반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모-자녀 갈등이 커질수록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커질수록 청소년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해지며, 갈등이 약할수록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적응적인 것이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청소년기에 적응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자녀 갈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Cooper et al., 1983; Hill & Holmbeck, 1986)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Holmbeck & Hill, 1988)와 일치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상관분석 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온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어머니와의 갈등 등의 분리-개별화와 관련된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양육태도가 더 이상 강한 영향력이나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분리-개별화 관련 변인들에서의 성차가 부분적으로 시사되었고, 본 연구의 차이 분석 및 상관 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에 대해 남·여 집단 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두 집단 간 구조모형 및 경로계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리-개별화의 일반적인 처

리 과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자녀 갈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모-자녀 갈등이 커질수록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 갈등이 부모의 양육태도(Cooper et al., 1983; Hill & Holmbeck, 1986), 청소년의 분리-개별화(Holmbeck & Hill, 1988)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 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어머니와의 갈등 정도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여 집단에서 앞서 획득한 연구모형이 또래 애착 고·저에 따라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에 또래와 부모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정영숙, 1999; Armsden & Greenberg, 1987; Bronstein, Fitzgerald, Briones, & Pieniadz, 1993)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 애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또래 애착 변인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었으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 애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중재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자 청소년 모형에서 또래 애착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한 모-자녀 갈등에서 분리-개별화 방향하는 경로를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또래 애착 저집단에 비해 고집단에서 모-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에서의 어려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

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모-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를 잘 설명해주며 부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설명력은 낮아지지만 역시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또래 애착이 좋은 경우라도 모-자녀 갈등이 심하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긍정적 또래 애착을 맺고 모-자녀 갈등 역시 적다면 분리-개별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 애착 고집단에 비해 설명력은 낮지만, 또래 애착이 좋지 않은 경우에 모-자녀 갈등 역시 심하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부정적 또래 애착을 맺었으나 모-자녀 갈등이 적다면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또래 애착이 서로 다른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오원정, 2000)에서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정서적, 도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으로서 또래가 기능할 것이라는 관점은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또래 애착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에 부모와 갈등이 높더라도 또래에 의한 지지로 인해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또래 애착 저집단에 비해 오히려 분리 개별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애착 고저 집단간에 부모와 또래 관계가 각각 서로 다른 상호작용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Bowlby(1970)의 내적작동모델 개념(internal working model)이나 Stayton와 Ainsworth(1973)의 주장에서 강조되기 시작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어머니의 양육, 애

착의 중요성과 청소년들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또래 관계의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애착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 애착의 고저 집단 간에 어머니와 맺고 있는 관계, 애착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내적작동모델의 연속성에서 보았을 때,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도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자녀 갈등이 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청소년기 시기의 의존성을 유지하며 모와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애착 고집단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더 의존하는 것은 부정적인 적응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또래 애착 고집단의 경우 부모와 갈등이 낮을수록 분리-개별화가 훨씬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또래와 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안정적인 경우에는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심하고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에 모-자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고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설명력이 낮아졌다.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연속성 상에서 보았을 때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도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래와 부모 관계에 있어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둬서 갈등이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또래 애착 저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또래나 부모와의 관계 모두를 지지원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또래 애착 저집단의 경우 부모와 갈등이 낮을수록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있어서 고집단에 비해 설명력이 약한 결과 역시 설명이 가능한데, 부모와의 애착 역시 낮은 또래 애착 저집단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낮은 것은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위한 안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또래 애착 저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에게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 것뿐이므로 부모와의 갈등 없는 관계가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남자 모형에서는 또래 애착 고저집단에 따라 경로계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래 애착 변인의 중재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또래 애착의 고저 수준과 무관하게 모-자녀 갈등이 클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며 갈등이 적을수록 성공적으로 분리-개별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분리-개별화의 과정 상에서 또래 애착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친구에게 더 친밀하며 인정과 돌봄 등의 지지를 더 많이 해준다는 연구결과(Parker & de Vries, 1993; Rubin, John, & Woo, 1982)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친구관계를 더 친밀, 애정적으로 지각하며 긍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1)를 적용해보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또래관계를 지원으로 지각하거나 활용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녀 간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은 주로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거나 다른 종속 변인을 설정해 두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 중 갈등이 중요한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설정하고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성별 및 또래 애착 고저 집단에 따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의 의미를 밝힌 점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갈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리-개별화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임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들은 학업 성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가족변인 또는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내적 변인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외에 청소년기에는 특히 또래 관계 등 가족 외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자집단의 경우에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모-자녀 갈등이 분리-개별화를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 관계를 토대로 좋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남자집단의 경우에는 또래 애착의 수준이 분리-개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은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는 또래 애착의 질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측정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관점으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사, 또래, 부모 등 다중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더욱 신뢰로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객관적인 보고와 자기보고가 실시되어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관한 더욱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분리-개별화 척도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어려움을 정확히 측정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척도는 분리-개별화를 유형화로 나누어 본 것이 대부분이므로 변안한 외국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이 척도는 분리를 강조해 만든 것으로 청소년들만의 특징적인 분리-개별화 수준을 측정해내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로 인해 3개의 하위요인이 제외되었고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변안된 척도를 사용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맞춰 하위 요인을 일부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유형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리-개별화의 수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예리(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 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김은진(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2001). 대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과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사이의 인과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10(1), 161-173.
 배재현, 최보가(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원정(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4(1), 36-48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주희, 이춘재(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이희자, 최수경(1999).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대한가족학회지, 37(8), 18-28.
 장근영, 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한국 심리학회: 발달, 5(1), 157-175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정영숙(1999). 친밀성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2(2), 106-116.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 중단적 연구. 한국 아동학회, 21(3), 85-105.
- 한혜준 (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홍세희(2005). 상담심리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2006년 동계학술연수 워크샵 자료집.
- 황영은,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5(2), 133-154.
- Ainsworth, M.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 Blain, M., Thompson, J., & Whiffen, V. (1993).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ce: The interac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8, 226-241.
- Blos, J. W.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ur: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eckler, S. J. (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20), 260-273.
- Blustein, D.,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70).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2), 75-86.
- Bronstein, P., Fitzgerald, M., Briones, M., Pieniadz, J. (1993).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Predictor of Early Adolescent Soci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132-143.
- Cooper, C., Grotevant, H., & Condon, S.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 taking-skill*(pp. 43-60). In A. Grotevant & C. Cooper,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Dwairy, M., Achoui, M., Abouerie, R., & Farah, A. (2006). Parenting Styles, Individuation, and Mental Health of Arab Adolescents : A Third Cross-Regional Research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3), 262-272.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 Youth Adolescence*, 19, 571-587.
- Grotevant, H., & Cooper, C.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ill, J. P. (1993). Recent advance in selected asp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69-99.
- Hill, J., & Holmbeck, G.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G.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Greenwich, Conn, : JAI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Holmbeck, G. N., & Hill, J. P. (1988). Storm and Stress beliefs about adolescence: Prevalence, self-reported antecedents, and effects of and undergraduate cour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285-306.
-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5), 563-581.
- Josselson, R. L. (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pp.188-210).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Wiley.
- Kenny, D. A., & Deborah, A. (1994). Enhanced co-orientation in the perception of friends: A social relation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212-229.
-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r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23-137.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peers. *Child Development*, 53(1), 1512-1519.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Parker, S., & de Vries, B. (1993). Patterns of friendship for women and men in same and cross-sex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4), 617-626.
- Prinz, R. J., Foster, S. L., Kent, R. N., & O'Leary, K. D. (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Corre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298.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bin, S., John, S., & Woo, J. M. (1982).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Risk Detection for Fetuses of Unknown Gestational Age.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44*(6), 202-213.
- Santrock, J. W.(1996). Self-efficacy and classroom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 22*, 208-223.
- Schafer, R. (1973). Concepts of self and 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ce. *Psychoanalytic Quarterly, 42*(1), 42-59.
- Smollar, J. & Youniss, J. (1989).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ocial context*(pp.300-316). In T. J. Berndt & G.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Stayton, D. J., & Ainsworth, M. D. (1973).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responses to brief, everyday separations as related to other infant and matern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9*(2), 226-235.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5), 1266-1281.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hornburg, H. 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2nd ed.). Monterey, CA: Brooks, Cole.
- Weiss, M. R. (1982). The effects of age, modeling, and verbal self-instruction on children's performance of a sequential motor task.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8-A), 3503.

1차 원고 접수: 2008.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11. 10

최종 게재 결정: 2009. 11. 11

Th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on Adolescence Separation -individuation mediated by mother-adolescent Conflict-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Hye Jin Kim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arenting,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mother-adolescent conflict in accordance with peer attachment. Participants were 596 high school students at the 3 high schools in Inchon and Seoul. They completed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CBQ),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 the Inventory of Peer Attachment(IPP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s, Multi sample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the AMOS 5.01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model was supported by the maternal parenting on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caused by mother -adolescent conflict. Second, The adolescence separation-individuation model varied with sex and peer attachment.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ccurred only in girl's group.

key word: maternal parenting, separation-individuation, mother-adolescent conflict, peer attachment